

제임스 S. 스피겔 박사, 기독교 윤리, 세션 10, 낙태, 파트 1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낙태, 1부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주요 도덕 이론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몇 가지 실제적인 도덕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러한 각 이슈에 대한 찬반 논쟁을 살펴보고, 이미 논의한 도덕적 원칙과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다양한 이슈에 적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마도 가장 논란이 많은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낙태 논쟁입니다. 임신에 대한 생물학적 배경을 조금만 설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의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가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자에 의한 난자의 수정 후, 접합자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자궁으로 이동하면서, 그것은 배반포가 됩니다. 배반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대략 3주에서 8주 사이에 배아라고 불립니다. 약 3 주 반이 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데, 이는 약 6주차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7주차에 뇌 활동이 시작되고, 이 시점에서 태아라고 합니다.

대략 16주차에 태동이 생깁니다. 그때가 엄마가 자궁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24주차쯤에 우리는 생존 가능성에 도달합니다.

아기가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반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3~4주경의 배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7 주 반 된 배아가 있습니다.

10주. 3개월. 1주일. 4개월.

6개월. 8개월 3주. 그리고 짜잔, 제 아들 앤드류가 있습니다. 그가 6 개월이나 8개월이었을 때였죠.

그럼 다음으로, 낙태의 몇 가지 범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낙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구분은 임신 종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낙태는 임신이 종료될 때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구분은 자연유산과 외부 유도 유산입니다. 자연유산은 유산이라고도 하며, 이는 어떠한 도덕적 논쟁이나 논란의 원천이 아닙니다. 물론 논란이 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임신 중절이 외부 유도될 때입니다.

이것은 진공, 흡인, 확장 및 소파술, 식염수 주입, 자궁 절개술, 프로스타글란딘, 사후 피임약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심적인 철학적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주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아의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태아, 배아 또는 배반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어떤 종류의 실체일까요? 임신 중 어느 시점에 이야기하든, 우리는 이것이 어떤 종류의 실체인지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속지, 즉 맹장이나 편도선 또는 아데노이드와 같은 것일까요? 잠재적으로 인간일까요? 인간이지만 생물학적으로만 그럴까요? 생물학적 인간이지만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면 태아는 배반포 또는 접합자일 뿐, 완전한 인간일까요? 따라서 태아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 하에서는 서로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태아의 도덕적 지위는 무엇일까요? 태아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태아에 대해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그 질문이나 그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은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이전의 답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이 태아의 지위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먼저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법적 배경에 대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1973년의 획기적인 판결과 대법원 판결인 Roe 대 Wade는 거의 50년 동안 법적 선례를 안내해 왔습니다. 법원은 임신 기간을 3단계, 즉 다양한 3개월로 나누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각 삼분기에 적용되는 특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신 첫 삼분기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가 낙태를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두 번째 삼분기와 관련하여 법원은 주가 규제할 수 있지만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3분기에 관해서는, 주정부가 산모의 건강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제 Roe 대 Wade 이후로 다른 판결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같은 해인 1973년에 Doe 대 Bolton이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산모의 건강에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Roe를 확장했습니다.

4년 후 Planned Parenthood 대 Danforth 사건에서 그들은 부모나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임신한 어머니와 그녀의 의사에게 결정을 맡겼습니다. 1989년 Webster 대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사건에서 생명이 수정에서 시작된다고 정의한 미주리 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또한 낙태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금지했습니다. 3년 후 Planned Parenthood 대 Casey에서 낙태에 수반되는 다양한 위험을 여성에게 알리기 위해 24시간 대기 기간을 요구하는 펜실베이니아 법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부모의 동의 요건은 유지했지만 배우자의 통지 요건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Roe 대 Wade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주요 대법원 판례가 낙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덕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낙태 논쟁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는 이 문제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 문제는, 이 나라에서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도덕적 문제는 그것이 합법적인가 아닌가, 그리고 언제, 만약 그렇다면, 여성이 낙태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적절한가? 그러므로, 사람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생명권 옹호자이거나 선택권 옹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의미에서 생명권 옹호자이며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없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법적 의미에서도 생명권 옹호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선택권 옹호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는 생명을 지지하지만 법적으로는 선택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견해의 관점에서만 보면 약간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도덕적 문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것이 법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요 선택의 자유, 도덕적 선택의 자유 주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택의 자유 관점을 지지하는 가장 잘 알려진 두 가지 주장은 아마도 주디스 자비스 톰슨과 메리 앤 워런이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럼, 독특하고 매우 혁신적인 주디스 자비스 톰슨의 주장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메리 앤 워런과 달리, 톰슨은 주장을 위해 태아가 완전한 인간이라고 가정합니다. 태아가 생물학적으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아에게 인간 성인과 같은 도덕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이 여전히 나올까요? 그리고 그녀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또한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직감을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바이올리니스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툼슨은 꽤 유명한 사고 실험을 사용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옆 침대에 누워 있는 누군가에게 정맥 주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기절하고 납치되어 희귀 혈액 질환을 앓고 있는 당신 옆의 사람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질병은 당신의 특정 혈액형만이 도울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일종의 생명 유지 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 애호가 협회는 이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특별한 피의 물리적 지원 없이는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그 사람과 연결되었으니, 그들은 당신이 9개월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고 말하고, 그러면 당신은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당신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알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죠?

그냥 여기 앉아서 몇 주, 몇 달을 기다릴게요. 아마 그럴 리 없죠. 아마 당신의 대답은, 잠깐만요, 아무도 나한테 묻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이올리니스트가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고 저와 마찬가지로 사람인데도, 9개월 동안 이 불편함과 불편함을 겪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연혹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은 저를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톼슨의 요점은 이것이 낙태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사람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 경우에 스스로를 분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우리는 태아가 권리를 가진 완전히 개인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것은 당신의 자유를 보존할 권리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비유가 모든 태아가 여성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임신을 계속하도록 명령하는 생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거나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해 조금 후에 더 자세히 답변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찰했듯이 이 비유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에만 적용되는 것 같다는 점을 이 시점에서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정확한 비유인 듯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행동 없이 이 사람을 지원하도록 강요받는다면, 그것은 강간과 유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고 실험과 관련하여 나중에 이야기할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톰슨은 사람들의 씨앗에 대한 또 다른 사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에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고 보이지 않는 씨앗이 있는 우리 자신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카펫이나 실내 장식에 떨어지면 인간, 즉 인간 식물이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상상의 세계에서, 인간 식물이 가구나 바닥에서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창문에 두는 반투과성 미세한 메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은 거의 통과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막힐 확률은 99%이지만 씨앗이 통과할 확률은 1%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연히 카펫이나 실내 장식에 심어지면 식물 한 그루가 자랄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여성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창문의 메시지를 유지하는 데 매우 주의를 기울였지만 항상 창문을 닫아 두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신선한 공기를 좋아해서 창문을 엽니다. 메시는 있지만 씨앗이 통과하여 카펫에 심어집니다. 그녀는 몇 주 후에, 오, 사람이 식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시다. 저는 그 씨앗이 제 아파트에 심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므로 뿌리째 뽑을 것입니다. 톰슨은 그것이 완벽하게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여성의 아파트에서 자랐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것을 뿌리째 뽑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으므로 그녀는 여전히 그 사람의 식물을 뽑아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특정 종류의 피임법, 예를 들어 피임약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피임약은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되는 것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여성이 그런 상황에서 임신하게 된다면, 아파트에 있는 여성이 그 사람의 식물을 뽑아낼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훌륭한 사마리아인이 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바이올리니스트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식물을 키우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말했듯이 최소한 관찮은 사마리아인이 될 의무가 있지만, 최소한 관찮은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식물을 살게 하거나 바이올리니스트가 계속 연결되어 있도록 내버려 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960년대에 키티 제노베세라는 여성이 아파트 단지 밖에서 누군가에게 몽둥이로 맞고, 남자에게 반복적으로 찔리고, 10, 15분 동안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이 50명이나 60명이 아니라면 수십 명은 되었지만,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시다. 결국 그녀는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이 개입하기를 원치 않아 비극적인 사례로 유명하며, 누군가 당국에 전화만 했다면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당국은 현장에 도착하여 적어도 그녀가 칼에 찔린 후에

그녀를 구할 수 있었고, 일부 칼부림을 막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괜찮은 사마리아인이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위험에 노출될 정도로 자신을 내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법률, 좋은 사마리아인 법률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누군가를 도와야 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많이 내던지지 않는 법률, 예를 들어 1피트 깊이의 물에서 익사하는 유아를 구하는 법률은 이를 인정합니다.

당신은 최소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를 물에서 꺼내는 것만으로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당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법률이 있는 것은 적절합니다.

하지만 톰슨에 따르면, 예를 들어 피임에 실패한 경우 낙태를 처방하거나 제한하는 낙태법의 문제점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톰슨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태아를 살려두는 것은 최소한 예의 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피임을 통해 임신을 막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여성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진짜 인간이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것이 최소한 예의 바른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웅적인 일일까요? 따라서 임신을 계속하는 것이 실제로 당신의 의무인지, 의무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톰슨이 표현한 것처럼, 그것은 과분한 행위가 아닙니다. 의무의 부름을 넘어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사람 씨앗 비유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하며, 톰슨이 여기서 한 것은 매우 친밀한 행위인 섹스를 무심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과 잘못 비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생식이 비슷하게 수동적인 일이라고 잘못 암시하는데, 이는 누군가가 임신하는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의 경우, 그것은 관련된 두 사람 모두의 합의에 따른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사고 실험에는 일종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녀의 주장에 대한 톰슨이고, 우리는 곧 그것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바이올리니스트 주장에 대해,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안 워런의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또한 잘 알려져 있고 톰슨의 주장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워런은 태아가 인격체라는 생각에 도전하고 태아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선택의 자유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녀의 기본 주장은 모든 사람만이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아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태아는 도덕적 권리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논증, 즉 삼단논법이 타당합니다.

모든 사람만이 도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태아는 도덕적 권리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제, 거기서 논란이 되는 전제는 두 번째 전제,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워런은 어떻게 그것을 옹호할까요? 그녀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도덕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정의하고 태아는 도덕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 자신의 사고 실험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우리의 직감을 불러냅니다. 우주 여행자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들이 다른 행성에 착륙하여 이상하게 생긴 움직이는 존재들을 만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소리, 삐 소리, 휘파람을 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주 여행자들은 이러한 존재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여서 그들이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워런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질문인데, 그들은 이러한 이상한 존재들이 사람인지 아니면 도덕적 공동체의 구성원인지 판단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질문을 해야 하거나 할 것인가입니다. 다른 행성에서 만난 이상한 존재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것들을 찾을 것인가? 그녀는 이것이 그들이 찾을 것이고 당신과 내가 찾을 종류의 것들이라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의식이 있는지,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는지, 추론할 수 있는지,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이 있는지,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 개념이 있는지, 자기 개념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떤 개체가 도덕적 공동체의 일원인 사람인지, 따라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경우든 찾아야 할 특성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다섯 가지 기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아마도 세 번째가 인격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의식, 추론, 그리고 아마도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안하는 것은 적어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이 있어야 하고 추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것들이 필요 조건이라면, 그리고 그녀는 이것들이 인격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라고 믿으며, 이러한 자질이 없는 존재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태아는 이러한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태아는 의식이 없고, 추론할 수 없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이 없고, 소통할 능력이 없고, 자기 개념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 발달에서 나중에, 사실, 출생을 훨씬 넘어서 뒤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결론은 태아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없고, 따라서 여성은 어떤 경우에도 낙태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 이것은 다시 매우 영향력 있는 주장입니다. 비판의 차원에서, 이 추론이 원치 않는 아기를 죽이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 신생아가 추론할 수 없고, 소통할 수 없고, 자기

개념이 없고, 거기에 자기 동기 부여 활동이 없다면, 그것은 이러한 기준에 실패합니다.

기본적인 인식이나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녀는 신생아에 대한 인식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70년대 초에 이 주장을 제시하면서 쓴 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는 유아 살해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압도적인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아기를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궁 밖에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걱정거리이고, 아기를 살리려는 그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등등. 그래서 그녀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유로 유아 살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유아 살해는 그녀의 견해의 논리적 결과입니다.

둘째, 그녀의 우주 여행가 삽화는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녀가 충분한 조건과 인격에 필요한 조건을 혼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건과 충분한 조건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X 가 Y 에 대한 필요 조건은 X 가 없는 상태에서 Y 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X 가 Y 에 대한 필요 조건은 X 가 없는 상태에서 Y 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소는 연소에 대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산소가 없으면 연소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X 가 Y 의 존재를 보장한다면 X 는 Y 에 대한 충분 조건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것은 미국 시민권을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미국 시민으로 귀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시민이 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국 시민임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워런의 주장으로 돌아가서, 의식, 추론, 자기 개념, 자기 동기 활동, 의사소통 능력의 이러한 기준 또는 이러한 특성, 인격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있고, 그것이 다른 행성에서 발견한 이러한 실체가 인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근거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격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것, 당신이 인격이 되기 위해 그것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주장은 그런 이유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인간과 사람에 대해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즘 낙태 논의에서 매우 흔한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강력한 생명옹호론자조차도, 글썄요, 우리는 인간과 사람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구분이라고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의 하위 범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반대가 아닐까요? 만약 인간이 사람의 하위 범주라면 어떨까요? 결국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은 사람입니다.

천사적 존재는 인격체이며,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옳다면 신이 우주에 어떤 다른 종류의 인격체를 만들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적인 생명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형상을 지닌 자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실제로 사람의 하위 범주일 수 있고, 그런 경우, 우리가 누군가가 인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저 그것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어떤 여성의 자궁에 있는 어떤 인간이든, 발달의 어느 시점에서든, 그러므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낙태 찬성 입장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주장이며, 낙태 논쟁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장 중 두 가지인 Judith Jarvis Thom

pson과 Marianne Warren의 주장이며, 저는 이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철학적, 신학적 측면에서 낙태 찬성 주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S.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낙태, 파트 1입니다.